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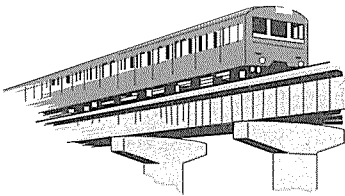


# 건강진단



유종연

〈수필가·한전홍보실 전문위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장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수십년간을 한결같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은성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을 본 후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몇 사람의 가까운 친지에게 책을 사 주면서 표지 뒷장에 써 준 글귀이다.

“이 세상에 사람처럼 큰 존재는 없다. 사람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다.” 소설 내용 중 주인공이 스승의 몸을 부검하고 난 후 독백하듯 한 말이다.

소설 ‘동의보감’은 이조시대 한 의원의 파란만장한 의술 한평생을 그린 작품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가 쏟은 초인적 집념과 신념은 소설의 재미를 넘어 생명의 무한한 가치와 경의를 가슴 절절히 대변해주고 있다.

나도 그 소설을 읽고 난 후 다시 한 번 생명이란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심장的高도 느껴보았다. 새삼스러운 감동이 온 몸을 통해 번져왔고 그 감동은 이내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평범한 사실이, 1년 3백65일 조그만 쉽도 없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몸 구석구석이 나도 모르게 벅찬 환희로 내게 다가왔다.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들 한다. 인체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끔 우리 몸의 오묘 불가사의한 구조와 능력 앞에 문득문득 놀라고 탄복해 마지않는다.

어떤 자료에서는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의 1일 신체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인의 심장은 10만3천6백89번을 뛰고, 피는 2억6천8백30만 킬로미터를 돌며, 2만3천40번의 숨을 쉰다. 그래도 사람은 피곤한 줄 모르고 즐겁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간다.’

참으로 놀라운 활동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체는 그 만큼 수 없이 규칙적으로 빈틈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크나 큰 축복이다.

오늘 밤 나는 다시 한 번 그러한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오래 동안 걱정만 하며 미뤄오던 위내시경 진찰을 용기를 내 받아본 결과 감격스런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소화가 제대로 안되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속이 계속 편하질 못했다. 자연히 일의 능률도 좋지 않았다. '혹시 큰 병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종던 식성마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바쁜 업무의 틈을 내어 병원을 찾았다. 나의 발걸음은 마냥 무겁기만 했고, 그렇게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도 그날 따라 나에게만 낮게 가라 앉은 겨울하늘처럼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다.

수년 전 받아본 건강진단의 합격 판정도 이미 오래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 위안이 되지 못했다.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과음을 했던 일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소식(小食)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식탐(食貪)이 많아 무엇이던 많이 먹어댄 일들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부장님이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까?”

“저는 부장님 옆에 앉지 않겠습니다. 제 뭇까지 침범하면 저는 뭘 먹습니까?”

걸핏하면 내 식성문제로 웃음꽃이 피게 마련이었던 회식 자리의 농담들도 이제는 그냥 씩씩하기만 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 정말 생각하기에도 끔직한 뭉쓸 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온 몸이 조여드는 것만 같았다.

마치 재판정에 들어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병원에 드러놓았다. 건강관리에 무관심했던 그 동안의 죄과를 선고받는 자리 같아 착잡한 심경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진찰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웠다. 이내 모니터 화면에 목구멍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고 곧 이어 위내부가 나타났다. 언젠가 영화와 TV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긴 터널이었고 위주머니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같은 내 몸의 일부인데도 얼굴이나 손발처럼 따뜻한 정감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 정이 들지 않아서였을까, 긴장했거나 모양이 흉해서였을까, 마치 남의 것을 보는 것 같은 어설픈 상면이었다.

어쩌다 슬쩍슬쩍 점 같은 것이 비쳐질 때는 저것이 혹시 나쁜 부위나 아닌지하여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뭐가?” 하고 혼자 뇌까리듯 하는 의사의 말이 나를 바짝 얼어붙게 만들었고, “응, 별것 아니군”하는 말에 나는 안도의 긴 숨을 내 쉬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一喜一悲), 그 순간 순간의 의사는 내게 있어서 마치 저승 사자나 다름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의사는 내게 판결을 내렸다. “괜찮습니다. 약간 있는 위염증세는 약 며칠만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합격이었다.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심심찮게 나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고 최근에 와서는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았던 위의 건강문제에 별 이상이 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밖으로 나온 나의 발걸음은 유난히 빠르고 힘이 있었다. 고개는 어느 새 하늘로 향해 있었고 무어라 소리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낮게 드리웠던 하늘이 갑자기 높아 보였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었다. 누구라도 붙잡고 나의 건강을 자랑하고 싶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찬가를 노래하고 싶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던가, 객관적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달라져 있었다. 어둠이 밝음으로, 절망이 환희로, 원망이 감사로 변해져 있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튼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평범한 현실이 엄청난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휘감고 있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밝은 햇빛, 부드러운 바람, 낮 모르는 얼굴들, 나를 에워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였다. 삶이란 것에 대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나아가 어떤 크나 큰 진리에 대한 감사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의 표정이 다른 때보다 밝아 보였던지 안사람은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야양을 띤다.

‘그렇지. 좋은 일이 있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속으로 혼자 웃으며 저녁 밥상을 받았다. 오전에만 해도 금방 소나기가 퍼부를 것 같았던 내 마음은 어느새 푸른 가을하늘같이 맑아 있었고, 떨어져 있던 입맛도 금방 돌아와 있었다.

나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아들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상념에 젖어들었다. 내 몸 아픈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온 몸을 휘감았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움과 고통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던 어느 해맑은 미소를 지닌 스님의 말씀도 그날 따라 유난히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